

## 목 차

성경 바로 읽기	1
제 1 장: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22
제 2 장: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40
제 3 장: 무죄 경륜	50
제 4 장: 양심 경륜	56
제 5 장: 인간 정부 경륜	64
제 6 장: 약속 경륜	72
제 7 장: 율법 경륜	80
제 8 장: 율법의 역할과 목적	88
제 9 장: 은혜 경륜	96
제 10 장: 교회	106
제 11 장: 환난기	117
제 12 장: 왕국 경륜	126
제 13 장: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136
제 14 장: 경륜주의 요약	145



## 성경 바로 읽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 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참아내지 않을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미 디모데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통합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빈야드 운동, 브라운스빌 부흥 및 펜사콜라 부흥 등의 거짓 부흥이 기독교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또한 프라미스 키퍼(아버지 학교), 알파 코스 등의 기독교 운동이 심리학을 동원하여 산불처럼 번지면서 성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미 선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해 소위 '휴거 파동'이 생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게 되는 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이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

본서를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려 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감리교회에 다녔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주 예수님의 은혜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생으로 교수로 지내며 미국의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은 기독교 서적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근본적 크리스천들이 좀 더 성경에 가깝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침례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뉴에이지 인본주의의 길로 나가며 자유주의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배도 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래도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가가호호 전도하러 다니는 근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어느 곳에서나 설교자들의 90% 이상이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물론 저는 결코 침례교만이 좋고 나머지 다른 교단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이 침례교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2 성경의 파노라마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려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비유적 해석을 주로 하는 한국의 목사님들과 다른 성경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드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마다 자기 뜻에 맞게 아전인수 식으로 성경말씀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이나 교단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에 혼란이 오면 믿는 이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며 소망이 흔들리게 되고 각종 이단이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바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자기의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접한 근본주의 책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루 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므두셀라는 문자 그대로 969세를 살았으며 문자 그대로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으며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으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교회이며 천년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 1000년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며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환난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확신의 시대에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따돌림을 받게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 자기가 믿는 바를 밝히지 못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이나 교단의 가르침에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분께서는 성경말씀대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유적 해석 방법과 문자적 해석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sup>3</sup>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sup>4</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sup>10</sup>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sup>12</sup>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sup>13</sup>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sup>14</sup>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sup>15</sup>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sup>16</sup>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sup>19</sup>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sup>20</sup>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sup>30</sup>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비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위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모두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어야만 합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이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 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이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견디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죽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3절의 ‘세상의 끝’과 13절의 ‘끝까지’의 끝과 14절의 ‘끝이 오리라’의 끝은 다 같은 끝입니다. 또한 이들은 ‘산속으로 도망하는 것’이 ‘교회로 피신하는 것’이며 ‘아이를 가진 자들’ 즉 임신한 자들은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며 ‘겨울’이란 믿음이 떨어진 때며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곧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으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환난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더 없이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끝까지 전파될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입니다(14절). 세상 끝에 유대인들은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유대 땅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서는 곳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 교회인 교회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야만 하며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앞의 두 가지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을 짓는 것뿐이며 이것을 위해 유대인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분쟁의 주원인이 바로 성전 건립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립되어야 비로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위의 말씀이 성립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며 분명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이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환난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산속으로 피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피신하려면 임신하여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날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없으므로 죽게 되고 역시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므로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위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유대는 북반구에 있으므로 그곳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 되므로 아마도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여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임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양의 혼인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 부르며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딤후2:13). 창세 이후로 없었던 무서운 환난을 다 겪은 후에 휴거를 받으면 과연 그것이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4 성경의 파노라마

복된 소망입니까?

독자는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읽을 때 비유로 읽습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친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그대로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며 읽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기록되어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통에 따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세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sup>1)</sup>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세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몇 가지 세대가 있을 것임을 가르치는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무슨 주의’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보이기 위해 ‘세대주의’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유 해석을 중시하는 ‘언약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디 독자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의 최종권위입니다.

### 세대주의 개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세대주의’란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란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저술 등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보려는 흥미를 처음으로 일깨워 준 성경 회의나 예언 집회 혹은 특별한 모임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란 말을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단 가르침이라는 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가르침 역시 조직화 과정과 발전 과정을 겪어 왔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본 특징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왔으며 서투른 모방과 판에 박힌

---

1)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라는 용어에 들어 있는 ‘dispens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경영 체계’이다. 한 경영 체계에는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여기서 세대 혹은 시대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체계를 보통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dispensation’을 경영 체계, 경륜, 세대 등으로 혼용했지만 원래 ‘dispensation’이 기간이나 시대보다는 경영 방식 혹은 경영 체계라는 것에 유의하여 본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비난 등은 세대주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세대주의의 관점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장로교가 주축인 국내에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도입되어 종말론에서 표준이 되었으나 날이 가면서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교회가 신학적/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관에는 크게 ‘신비주의적 종말관’과 ‘세대주의적 종말관’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펄시 콜레, 이장림 등이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종말론이며 헬 린제이,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등의 종말관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세대주의의 어떤 틀을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시한부 종말론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직통 계시를 믿고 생업을 버린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 옷을 입고 자정에 휴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침례교가 주축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스코필드 주석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의 영향으로 온건한 세대주의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 체제든 민주당 체제든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근본 이유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확고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가 있고 학구적이라는 신학교들 - 예를 들어 달라스, 탈봇, 무디, 그레이스, 펜사콜라<sup>2)</sup>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 - 은 모두 온건한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서구에서 언약주의(칼빈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말씀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 해석 체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2) 미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시에는 렉크맨이 운영하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www.kjv1611.org](http://www.kjv1611.org))과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 [www.pcci.edu](http://www.pcci.edu))가 있다. 국내에는 렉크맨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마치 PBI가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PBI는 렉크맨의 교회에서 밤에 모이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하다. 물론 야간신학교라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PBI가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과 그들의 교리의 창시자 렉크맨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대학이다. PCC에서 발행되는 홈스쿨링 교재인 ‘아베카복’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이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6 성경의 파노라마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만 끝 날에 이루어질 부분 즉 종말론에서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양 진영이 대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왕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약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으며 그것을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달리 보므로 에스겔서 40-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해석입니다.<sup>3)</sup>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고 말씀하심으로 에덴동산을 성령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8:5)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언약주의자들은 종말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해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동일한 장로교 저자가 스가랴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메릴 언거(Unger 1978)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석을 하고 있다. 예로서 2장 1-13절의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은 '그 도시가 미래에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1978:43).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는 환상(3:1-10)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있다(55쪽). 11장은 미래에 거짓 목자

3) 이 글은 <http://blog.daum.net/11christ/10411012>에서 취했으며 저자는 김정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며 12장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고 말한다(206쪽).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 (12:1-9) 메시아 왕이 두 번째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12:1-13:9).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승리를 거둘 것이나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변형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14장). 따라서 14장은 전적으로 예언적이다(wholly prophetic).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과거 역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238쪽). “스가랴 14장은 현 시대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예언적이다.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이다”(239쪽). 그리고 엉거는 파인버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장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스가랴가 지금까지 계시한 것과 성경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이 나누어지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엘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해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캐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 종말과 연관된 본문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준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꿈과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다. 묵시문학은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제시하며 고난 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한다. 신자들이 고난 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징(symbolism)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언약주의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체계와 믿음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진지한 크리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들의 진지함을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 산에 닿는 것은 곧 사도행전 1장 11-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 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 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로 무시하고 영해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8 성경의 파노라마

세대주의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은 세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언약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이 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sup>4)</sup>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의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티(Justine Martyr, 주후 110-165)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30-200)는 신약성경에 네 복음서 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는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아담, 노아, 아브라함)를 구분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희생 법규의 제정은 이전 세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폐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늘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주가 되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분인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주후 1135-1202)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시대 역사 이론 즉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영광 의의 미래 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파급시킨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

4) 역사성 부분은 라이리(C. Ryrie)가 지은 「오늘나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Today*, 1999, Moody Press)에서 발췌하였음.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처럼 사도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원시의 혹은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후에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L'OEconomie Divine*)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후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 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특별한 경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sup>5)</sup>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세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A Complete History or Survey of All the Dispensations*)이란 제목의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출간했습니다. 그의 저술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행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역시 세대주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논고에서 세대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신의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세대주의적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후의 아담의 신앙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6. 기독교 세대

천년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체계는 현시대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시켰지만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백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 줍니다.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C. I. Scofield)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시켰는데 그의 체계는 다비의 체계와 달랐습니다. 스코필드의 체계는 와츠의 체계와 비슷하며 다비의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로부터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5)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목사로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른 사람이다.

## 10 성경의 파노라마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이 주후 100년경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결코 종말론이나 원시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에서 교리의 체계적 발전이 그때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세대주의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가르쳐졌다.
- (2)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이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임마누엘 라쿤자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라쿤자가 7년 환난설의 주창자라고 말하며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 -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주교 누룩 - 를 넣기 위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낸 이론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는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천주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 역시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기를 믿으면 천주교의 예수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보여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으며 또한 이런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가는 성경이 평범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B.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요, 일곱 번째 세대인 '천년왕국 시대'를 부각시킨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대주의에서 '세대'(Dispensation)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 혹은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보다는 경륜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한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말로 '세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영 체계(세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신다.
2.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응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3. 사람 편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외에도 세대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개의 경영 체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 체계는 이러한 부차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험 -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
2. 책임/반응하기 위한 믿음
3. 사람의 실패
4. 심판 -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 주는 것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를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체계들과 이것들로 인한 시대들을 바르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지 결코 세대가 몇 개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
2.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짐승의 희생)
3. 율법-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12 성경의 파노라마

### 4. 은혜- 그리스도부터 현 시대

### 5. 천년왕국

위의 다섯 개 경영 체계 혹은 세대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러한 경영 체계의 앞뒤로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결코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위의 두 번째 기간인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경영 체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영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1 타락에서 노아까지 -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경영 체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2.2 노아부터 바벨탑까지 -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2.3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스코필드 이후의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곱 개의 경영 체계/세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일곱 개 중 앞의 여섯 개는 주후 1700년경에 와츠가 제안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일곱 개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 환난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경영 체계는 모두 아홉 개가 됩니다. 이렇듯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두 개에서부터 아홉 개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일곱 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후에도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대개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단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다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영생은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삶에서 햇빛, 물, 공기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모두 거저 주어집니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힘을 들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공기나 물보다 더 값비싼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 교리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 세대주의의 이점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점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1-24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떠나 내 모든 범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지은 모든 범죄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돌이켜서 자기 의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곧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갈3:24).

또한 창세기 4장 9-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 같이 알미니안 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14 성경의 파노라마

웃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마25:35-36)

문맥에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문맥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마24:3)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then)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열 처녀 비유는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난 자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 즉 믿음이 있으면 -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 즉 믿음이 없으면 -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마7:18). 물론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 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13장 10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바로 그 위에 1-8절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눅22:36). 그러므로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바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고전15:1-4).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마3:2; 4:17).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敎會)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16 성경의 파노라마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 베드로는 22절에서 즉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세상 경영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가 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엡2:11-12)

그러나 교회의 출생 이후에는 인류가 셋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10:32)

경륜주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경륜의 제사장(사제, 신부), 성전(성당), 촛불,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등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1500-1600년경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오류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

한편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와 그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리다 (슥12:10).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분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너희[교회]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롬11:28-29).

사무엘기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삼하7:10)
2.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삼하7:13)
3. 죄로 인한 형벌은 있으나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삼하7:14-15)
4.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삼하7:16)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마 1:1) 이에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울 것입니다(사9:6-7).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거스틴 사상과 그것을 이어 받은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슥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받는다(슥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슥12:10-13: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슥 14:1-21).

### 세대주의의 위험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좋은 틀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체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이 되는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 체계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몇 과격한 이론들로 인해 어떤 신학 체계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에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A.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 신자들이 한 가지 형태의 고정화된 특정 방식의 세대주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개의 경륜이 있지만 성경 신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어떤 사람의 특정 방식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러크맨(Peter S. Ruckman)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경륜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몇 개의 경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비교해서 시험해야 합니다(행17:11; 고전14:29; 살전5:21).

스코필드(C. I. Scofield), 라킨(Clarence Larkin), 웨이퍼(Lewis Sperry Chafer)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코필드와 라킨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하며 창세기의 재창조<sup>6)</sup>를 믿었습니다. 러크맨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크맨이 운영하는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들은 한결같이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킵니다. 한국에서는 이송오씨가 대표로 있는 말씀보존 학회가 러크맨 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6)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땅이 이미 한 번 멸절되었고 3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첫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멸망한 옛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20세기 초에 진화론의 공세에 몰린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스코필드 등의 재창조 해석에 의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간격을 매우려고 시도하였고 이 믿음은 오랫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심 없이 수용되고 공유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성경 기사 그대로 6000여 년 정도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학교에서 재창조가 아닌 창조를 믿고 가르치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라이리(Charles Ryrie), 월브우드(John F. Walvoor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 등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경륜을 통해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경륜주의 체계를 채택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현 시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 B.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륜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조각조각내고 만다

이런 체계는 흔히 ‘급진적 세대주의’(hyper-dispensationalism)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등을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구분하고 조각냅니다. 여기에는 벌링거(E.W. Bullinger), 스태(Cornelius St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니다.

(1) 사복음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히2:3-4).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합니다. 또한 디모테전서 6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2)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들과 다르며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 등은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복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엡2:20).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벧후 3:1-2, 15-16).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스토퍼(Douglas Stauffer)는 러크맨의 교리를 토대로 지은 자신의 책 「One Book Rightly Divid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ible」(2000, McCowen Mills Publish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a. 바울만이 교회의 대변인이다(17쪽).
- b. 히브리서부터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20, 27쪽).
- c. 환난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23쪽).
- d.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23, 29쪽).
- e.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26쪽).
- f.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29쪽).
- g. 요한일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56쪽).
- h.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였다(175쪽).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20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을 주장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일반 서신들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런 것은 다 불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C.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경륜 사이에 변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바뀌는 변천기 역사를 기록하므로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마2:2; 눅2:25-39)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시며(마16:18)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시키면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현 시대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며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펼쳐지는 그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의 예언 성취를 다룹니다. 또한 방언(타언어) 은사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입니다(고전14:21-22).

한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의 아볼로와 19장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의 교리 즉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 D.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 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성경과 사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이나 계시록 등을 이런 부류의 책으로 여기고 읽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현 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롬 15:4; 고전10:6, 11).

### E.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대하므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글자로만 대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즉 경륜을 바로 나누어서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글자로 성경 기록을 주시고 경륜에 따라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 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논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홀로 서기를 하려 하므로 국내외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경 신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적

이 책에서 우리는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시대를 따라 펼쳐나가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 합니다. 독자께서 부디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성경 공부의 눈을 열어 준 이 신학 체계의 특징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